

■ 자료해설

金明淳의 <어뵘 子息>

박명진*

탄실(彈實) 김명순(金明淳)은 1900년 평북 평양군 용덕면에서 참사(參事) 김의경(金義庚)의 소실 몸에서 출생하여 진명, 이화를 거쳐 동경 여자전문학교를 다니다가 1917년 최남선이 주재하는 《靑春》에 이광수 추천으로 단편 <疑心の少女>가 현상 2등으로 입선함으로써 작가로 데뷔하였다. 이후 1919년 '창조' 동인으로 가담하였고, 1924년 《폐허이후》에 시 <위로>를 발표하기도 했다. 1925년에 매일신보에 기자로 입사해 활동하다가 1939년에 독일한 뒤 1951년 4월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¹

김명순은 어머니를 일찍 잃고 계모 밑에서 불행한 소녀 시절을 보내다가 당시 동향인이며 평양의 부호 화백이었던 김유방의 도움으로 이화학당에 다닐 수 있었다. 그녀는 김유방에게 사랑을 바쳤으나 자유주의자였던 그는 김명순에게 구속받기를 거부했다. 김유방은 자비로 김명순을 동경 유학 보냄으로써 자신의 곁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었다.²

* 중앙대학교 강사

1 권영민, 『한국근대문인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0, 169면.

2 그런데 전영택은 김명순을 회고하는 글에서 일본 유학에 대해 다른 증언을 한다. 즉 “그는 당시에 쉽지 않은 동경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제대

배신으로 상심해 있던 그녀는 김유방의 부탁을 받고 김명순을 도와준 와세다 대학 문과생인 임노원과 애인 관계가 된다.³ 데뷔할 당시 김명순은 필명으로 望洋草, 茫洋草, 望洋生, 彈實 등을 사용하였다.⁴ 소설가로 데뷔한 그녀는 이후 시 창작에 몰두하게 되고 1925년에 최초의 여류 시집 『生命의 果實』을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출간하였다. 생전에 복잡한 연애 사건 때문에 정신병에 걸려 일본 동경의 아오야마(青山) 뇌병원에 수용 중 사망했다고 하지만 그 정확한 장소와 시간은 알려진 바 없다. 김명순의 생애에 대해서는 김동인의 <김연실전>과 전영택의 <탄실과 그 아들>과 같은 소설에서 간접적으로 묘사된 바 있다.

1922년 동경유학생이었던 박승희, 김팔봉, 김복진, 이서구, 박승목, 김윤한, 이제창 등 7명이 모여 문예서클로 조직한 단체가 '토월회'이다. 일종의 독서유희회로 출발한 이 단체는 연학년과 이수창이 가담하고 당시 동경에 머물고 있었던 김명순과 그의 애인 임노일이 객원으로 참가한다. 김팔봉의 제안으로 단체명을 '토월회'로 정하고 이들은 김팔봉의 단편소설, 박승희의 단막 희곡, 김명순의 시, 김복진의 자화상 조각, 박승목의 승무 도안 등을 토론 대상으로 삼았다.⁵ 여름 방학 귀국 공연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배우를 찾기 위해 서울에 온 박승희는 진명여고를 거쳐 이화학당에 다니다 연극계에 발을 내디딘 이월화라는 여배우

로 집에서 허락하고 여비며 학비를 주어서 간 것이 아니라 저 혼자서 여비를 마련해 가지고 도망하다시피 간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생길을 떠난 것은 물론이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전영택은 이 글 冒頭에서 김명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증언하는 내용의 출처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신빙성에 있어 의심이 간다.

전영택, 「내가 아는 김명순」, 《현대문학》, 1963.2, 252면.

3 李鈺洙 編, 『한국근대여성사화(상)』, 규문각, 1985, 298~299면.

4 정영자, 「김명순 연구·上」, 《월간문학》, 1981.11, 260~261면.

5 유민영, 『우리시대 연극운동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0, 80~82면.

유민영, 『한국근대연극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6, 604~605면.

를 확보하고, 후에 이월화가 '토월회'를 떠나자 당시 조선배우학교를 다니고 있던 복혜숙을 포섭한다. 이월화와 복혜숙은 나중에 김명순과 함께 연극에 출연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김명순은 1927년 진보적인 극단 '종합예술협회'의 공연에 출연하기도 했다. 1927년 8월에 연학년, 이준열 등 7-8명이 조직한 극단인 '종합예술협회'는 그 해 11월 4일부터 안드레예프 작 <뽀맞는 그 자식>을 공연한다. 이 공연에서 김복진, 박길용 등이 무대 장치를 맡고, 김명순은 강홍식, 복혜숙, 이월화 등과 함께 출연한다.⁶

김명순의 소설, 시, 감상문 등은 지금까지 소개된 바 있으나 희곡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필자가 조사해 본 바로는 1923년 《신천지》에 게재한 <어붓 자식>과 창작집 『愛人の 선물』에 수록된 <두 愛人> 등 두 편의 희곡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愛人の 선물』은 '회동서관(滙東書館)'에서 발간되었으나 그 정확한 출간연도는 알 수 없다. '회동서관'은 고유식(高裕植)이 1908년 설립하고 이해조가 번역한 『워싱턴전(華盛頓傳)』을 처녀 출판으로 1937년까지 백 여종의 책을 낸 출판사이다.⁷ 그런데 이 창작집에 실린 산문 <鄉愁>의 발표시기를 1925년 12월로 표기되어 있고, 수록된 시 <希望>, <불꽃>, <郭公>이 각각 《현대평론》 1927년 1월호, 3월호, 4월호에 실린 것으로 보아 1927년경에 출간된 것으로 추정된다.⁸

여기에서 소개하는 김명순의 희곡 <어붓 자식>은 정치 시사 월간 잡지를 표방한 《신천지》 제3년 제7호(1923.7. 창간 2주년 기념호)에 실

6 양승국, 『한국근대연극비평사연구』, 태학사, 1996, 68면.

7 朴大憲 編著, 『우리 책의 장정과 장정가들』, 열화당, 1999, 12면.

8 창작집에 실린 시의 발표 연도는 신달자의 작품 연표에 의해 유추해 낸 시기이다.

신달자, 「1920년대 여류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72면 참조.

린 작품이다. 《신천지》는 1921년 7월 10일 백대진(白大鎭)에 의해 창간되어 1923년 8월 1일 제3권 제1호 총9호로 폐간된 월간 종합잡지이다. ‘民族的 自覺을 促進함이 本 報의 使命’, 그리고 ‘政治的 思想을 涵養함이 本 報의 目的’ 두 가지를 잡지 출간의 2대 목적으로 삼았다. 이 잡지는 창간호에서 백대진의 「新天地임을 宣言하노라」, 최영택의 「新天地 展開하도다」, 강매(姜邁)의 「生命力の 自覺」 등 세 글이 압수되고, 제2권 제4호에서는 오상은의 권두언 「有福한 나라,有福한 民族」, 백대진의 「日本 爲政者에게」 두 글이 전문 삭제로 당하여 임시호를 발행하게 되고, 백대진은 영어(囹圄)의 신세가 되는 등 수난을 겪는다.⁹

‘文藝附錄’에 박종화의 시 <지금은 시집간 누나>, 김안서의 시 <북方的 싸남>, 박영희의 시 <憂鬱>, 홍난파의 소설 <男妹> 등과 함께 실린 김명순의 <어붓 子息>은 단막희곡이다. 주인공인 ‘성실’은 어머니를 여의고 병과 싸우고 있다. 새어머니와 이복 자매로부터 받는 서러움은 김명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성순’이 속세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결말을 취함으로써 감상적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작품이다. 이 희곡은 작가의 개인적 감정을 보편화시키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근대 희곡의 한 지점, 즉 여류 희곡의 지향점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그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오영식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9 김근수, 『한국잡지사』, 청록출판사, 1980, 130~131면.

醫士二。기다리시지요 나는時方우리의지나온뒤길을한번더돌나다보아야겠습니다 三年前이맘때였습니
 다 星實氏를크신뒤로처음뵈기는그때였습니다 音樂會를맛치고도라오시는길에 무라가미상의紹介로
 나와인사를하고 세사람이그우에노公園을지나올때 빨간동백꽃이만여려러진것을 보고무라가미상은
 戀愛하는處女갓다고하니까 당신은戀愛란醜惡한것이라고 영도빛갓흔얼굴을숙였습니다 그래서나는
 내생각과갓흔가안갓흔가몰아라보려고 엇제그러냐고무렷더니 어두워지니까 魔障해지니까라고하
 셧습니다 그제나는용의를원심내여서 무엇으로그런줄을아느냐고무렷더니 대답지안으셧습니다 그
 후로는매공일星實氏를勸하게되셧습니다 그러나星實氏는내가모니아기도하지안엇습니다 오히려
 내가너무친절이할갑아懶을내셧습니다 그리고아무런일이잇셔도한공일에두번은맛나주시지안으셧습
 니다。

星實。저는제行動에야모意味를 가지지는안엇습니다 (먼저와는다르게極히理智的으로보일)

醫師二。당신은그런어려운表情을첫지안으실째가오겟지요 星實氏는耶수도그뜻말을조곰도變치안오
 셧습니다그러, 저는星實氏의醫士로왔습니다 星實氏는轉地해서야될것이외다 빨간동백꽃이써러진
 것을戀愛는處女로보지안는곳으로 사람々들이各種의아름다움으로 氣分써라變하는곳으로 魔障란
 것파어두음을모르는곳으로 의위하는이세상을위해서는한마대風說도남기지안코 가서야할것이외다。

星實。내가상에 微動하는病菌일지라도남기지안코 가겟습니다 (엄드러혹혹웃김 醫師二포켓트에서가
 루봉지를쓰내서손싸르재컴부에넛코포도酒를써물)

醫士二。제가지나습니다 이것을마시고주무십쇼 그러면이京城안에서는다시못뵈옵겟습니다 새로운셔
 에서다시뵈옵시다。

星實。이리주십쇼 이리주십쇼 (곰부들맞아서주저엄시마심)저는먼저잡니다 英湖氏이.....。

醫師二。안녕히주무십쇼 (急急退場) 곳가겟습니다。

星實。가서기다리게습니다 (寢臺우에四肢를주욱펴고바로눕다) (천천히寐)

星質。에! 그췌저는 피아노치고 英湖氏는 다른 학생들 파술네 잠기 하섯지요 일마나 몸이 빨느셨는지요 한 번 도범은 안 되섯지요 그리다가 내 종에는 속아서 한 번 되섯지요。

醫師二。그췌 星質氏는 사 팔이나 뿌시몬 것! 지금 도져 혼자 우서 볼 췌가 잇서요 그췌 었지 했 습 니 가 自由해 보 시오 에이 星質氏。

星質。우얼요 무라가 미상이 눈을 쓰고 숨으시오는 것을 보았지요。

醫師二。네 남구로! 바 찾기 내기 할 췌도 안 속이 었소?

星質。호호。

醫師二。하하 내가 췌 노은 것을 그췌 었던 가는 다 라고 진 손이 와서 집어 갔지요 그리고 언제는 또 당신 이 내 남 구로! 파를 만이 췌서 책갈피에 말니 었다가 동무 들에 게 도 난 호야 주고 무라가 미상의 오라 버니 게 싸져 주 었 다가 뜻 잇는 것이 라 닐 간 大驚寤色 하섯지요。

星質。그췌 저는 아 모 것 도 몰느는 친 키 었 지요。

醫師二。시방은? (星質 醫師二머 리 속이 고 웃 다 다 가 정 정 命 息 表 情 으 로 變 換) 저나 당신 갓 처 營 生 活 가 운 데 도 한 췌 것 기 움 은 었 셧 지요。

星質。네 가 널 핀 그림자 갓 처요。

醫師二。제가 星質氏를 뵈 온 것은 音樂節季 었 지요 그 曲 調 는 무 었 이 든 지 오라 그 것은 슈! 만의 謝 肉 祭 의 戲 弄 이 었 지요。

星質。그가 운 데 는 英湖氏와 갓 혼 孤獨한 靈 魂 이 繁 雜한 길 거 리 를 거 러 가 지요。

醫師二。당신과 갓 혼 그림자가 저 나 기 도 하 지요! 그췌 북 히 입 니 다 내 의 孤獨을 享 樂 도 못 게 하 된 것이.....

星質。갓 혼 말 숨을 멎 번 하 시는 지요 (暫 間 고 요 한)

醫師二。나는 참 星質氏의 醫師 로 왔 습 다。

星質。..... 미움이 조곰식 다른 사람 들 의 세 상 에 永 生 을 주 리 고 醫 師 로 오 셧 습 니 가。

醫師二。(곰부에 葡萄酒를 석류)

妹二。형님에게 술을 드리십시오。

醫師二。彈實 念慮마오 형님을 酒정균을 만들지 안을 터이니(微笑) 이것마 심쇼(星實에게 줄)

星實。(설니는 손으로 밧음)

醫師二。(다마시기까지 마라봄 妹二安心한 것까지 退場) 星實氏 잊지 하셨습니다가 어저녁에 그러케 몇구사

답을 늦겨 올니든 행으로 오늘 웬일이 심니가。

星實。不快했습니다 왜 그러케도不快했습니다。

醫師二。또 집안에 波亂이 이러났습니다가 彈實의 臂에 傷處가 고통하지 안음니가。

星實。저는 아 죽을 늑니다 약가 먹더케 했서는 지생각이 잘안남니다 富實이 와 무슨 의논을 하든 것만 개생각이

나지 안음니다 (혼자 말갓치) 그것도 무슨 말을 했든 지오。

醫師二。星實氏 일전에 내가 편지한 것파갓치 自己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이면 自己를 爲해서 죽는 죽는 대도

問題가 아니지오。

星實。(이러나면) 인제야 정신이 좋남니다 그러나 저는 英湖氏의 편지를 밧아본일이 업습니다。

醫師二。(얼굴을 수안)

星實。엇찌케 하섯는지 (머리속 여성감함)

醫師二。星實氏 오사 이제게 이상한 感情을 가지시지 안으섯는지。

星實。一年前부터 그런 일을.....(부끄럼)

醫師二。참두리다 東京에서 날째 연가거웠지오。

星實。에! 참그제는 동인날마다 宿舍에 오섯지오 그 뒤 잔등만 부엌케된 校服을 남으시고요。

醫師二。저는 그샌 土曜日이면 잔을 못자고 조와 하섯서요 종달이를 차져서 구름우에 나을나가는 것갓치 그宿

宿舍 열길에 벌써 드러서면 星實氏의 피아노 소리가 들렸지오(피아노를 가르키며) 그새도 저피아노였지오。

妹二。아츨에도판계치안였는데 아맘을시늘나섯나바요(醫師二가방을잡어후자에노음)

父親。그애가肺病을하러서그렸치。

醫師二。그렇키도하겟지만 몸시衰弱하섯습니다。

小童一。(左편뚝해서)네기벌서쓰러가지구나울것을(물주전자를보이며)마님뻘에느것네 사람이죽어간다는데 요것해라 조것해라 심부림판하라니물을쓰릴수가잇섯나(무대압호로거러나오다가억개를

잡뵈하고)노랑병든醫師가오섯네 저이가가운데아씨新郎되실인가 新婦는절구총갓고 新郎은쌍대갓

담 큰아씨나 자근아씨갓흐면쫓치 큰아씨는제비갓고 자근아씨는씨고리갓흔데 하필절구부인이조흔가。

父親。이자식주절거리지말고速히가져오너라。

小童一。(물주전자를갓다가卓子우에놓코退場)

妹二。(醫師二에게)형님씨더운물을싸라되릴가요。

醫師二。백안葡萄酒가쫓쳐오。

父親。(女下人一에게)이애네가가서찬장에잇는葡萄酒를가져오너라(女下人一退場)

妹一。(盛裝하고登場 醫師二에게정성스럼게머리속입 醫師우뵈더니二寢만바라본)

女下人一。(葡萄酒를가져음)

醫師二。(葡萄酒病을맞아들고)곰부가엄습니다그려。

女下人一。(다름바질退場)

醫師二。곰부가저오거든 이房을조유하도록 病者만남겨놓코다나가야겟습니다가벽은病이안이닛가 좀注意식할말이잇습니다。

父親。그러지(천천히退場 妹一退場 妹二退場하라다가멈췄섯슴)

女下人一。(곰부를가져오고退場)

妹二。아비나 아바니 내얼굴을 못보심니까。

父親。우리서부엇고나 집안이 亡할대닛가 계집애가울기는 왜 밤낮우리 옷이업니 밥이업니。

妹二。아비나는장님이로구나 아이구담담해타 나는인제살수업다(소리쳐우름)

父親。허허이것 내가음을막에罪를밧나부다 남의집과부를여서 말들을나어데려왔드니 하나는病身

하나는毒藥(맛혼년) 또마누라는마누타대로벌서十八年前自殺해업서진시앗을못먹어 내게야단 허허이

것네가 罪를착실이밧는걸。

妹二。아비나부엇임니까 子息압해부그린줄도모르고 아비나는우리어머니를죽였지오 남의富者집과부

를죽여서두번이나 아이를배개하고 그리고어머니가죽으닛간 그賚産을다가저다가 돌재언니(母女)만너

너히쓰도록하시고 우리는먹든지(母)든지매를맛든지(子)을홀기우든지(子)아는서요。

父親。허허요년이점점惡毒하여가는구나 제어업도善한계집이였다(星實)정신을채린듯이이러난)

星實。우리압해서어머니를辱하는것은곳치주십쇼우리(對)해서우리(母)親은우리의故鄉이고사랑입니다。

(다시드러누음 五分間)고요합 齧二고요히천천히登場 父親기가막힌듯이섯다가)

父親。英湖君오래만일세그려 엇재그저간에한번도볼수업섯나。

醫師二。네그저간안녕하섯습니까 무엇하는것업서그리되엇습니다。

妹二。(눈물짓고) 先生님안녕하섯습니까。

醫師二。(彈實의工夫)질했소。

星實。(몸을이르키려다가 락쓰러지며)容恕합쇼。

醫師二。病人이이러나실수잇습니까(진단)가방을열며星實의癡病(암)호로가서 설니는音聲으로(숨)엇셔십

니가(星實)아조피로운듯이 말하지못할)

女下一。아씨께서조끔전에의절을하섯서요。

醫師二。(注射할) (注射)를맛초고)彈實이왜이러캐되도록내게알니저안엇소。

(아조무서움듯이 거리가 서서 星實의 몸을 흔들며) 아이구 애가 정말 죽었고나 肺病이란 이리케속히 죽는것인가 절은것이 가엾기는하마 그러나 내게서 심할것은 없다 제게는 내가 야속하게 한일이 업스니가 (다시 星實의 몸을 흔들고 무시々々한듯이 가상을 잡히보고) 아직 濕氣가 있다 (急히 舞臺쪽으로 가거나 오며) 이애들아!! 이애들아!!

女下人 一。 右 邊 向 登 場

小童 一。 左 邊 向 登 場 ね 불느섯습니까。

小童 二。 左 邊 向 登 場

父親。 큰아씨가 氣絶하섯다 (小童二에게) 醫師를 불러 오너라 (小童一에게) 더운물을 쓰려 오너라。

(女下人一에게) 너는 이리로와 아씨를 붓드러 床위로 올너자。

(小童一, 二 退場, 父親 두 팔을 女下人一 두대리 붙쳐 드르러 함 星實 몸을 빚고며 소리쳐 부르지중)

星實。 동생아 열어나압혔니 容恕해라 나는 가서 말나지 못했다 동생아 人生이란 그럴개압흔것이 다 기름

이 말나서 동불이 썩지기 전에 우리는 도와가자 거기는 慈悲하신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손을 다고 손을 다고

오오앗밧는다 잊지하랴 우리들의 사이에 구지 존재가 격하여 골재이름지엿고나。

(父親 女下人一 간신히 星實을 붓드러 舞臺 위에 누임 星實가 위할년 것갓치고 요하여 집 父親 星實의 머

리편으로 우뚝히 나섯고 女下人 말치로昏倒할드섯습 妹二 얼굴에 傷處를 밧고 登場)

妹二。 아버지 (심술난듯이)

父親。 웨그러니 웬암상이 이러났느냐。

妹二。 나는 인제 참을수 업습니다。

親父。 무엇을 참갓단말이냐。

妹二。 아버니는 장님이로고나 (혼자 말갓치 부르러 지진)。

父親。 이년비릇업시。

星實。나는 동생의戀愛問題에는 第三者이다 그리고無能力者이다。

妹一。그리면형님은이 동생에게 조고만 怨惡도빌리지안으시고 努力도안써주시겠습니까。

星實。나는無能力者이다。

妹一。아아그리면나는형님을千代萬代咀呪할수밖게업습니다 사람이이러케困窮하여졌습세 조고만힘도

안빌린다 는것은 人情이아니외다。

星實。나는네戀愛或結婚問題에는 妨害者는아니나無能力者이다 다만네눈이더 밝아지고 네키가더 밝아

지기를마말씀이다。

妹一。나는장남이나 귀퉁어리가아니외다。

星實。너는고요히 너혼노생각하면 내가말하지안어도다알것이다。

妹一。나는그런不安한생각을하라고는안입니다。

星實。먼저도말했거니와 自己가누릴幸福은自己가얻어야할것이다 第三者에게求할것은안이다。

妹一。세상이다강강하여진다 (憤한듯落膽한듯)

女下人二。(登場) 큰아씨진지다잡쓰섯서요 (밤상을들고)가운데아씨 마님씨셔도생각이잇다고드려오

사람니다 (妹一)下人二退場)

(舞臺暫間고요함 星實 煩悶하는듯이업드렸습 舞臺뒤에서妹二의 울며부르짖는소래들남 五十女

의우짖는소래도들남)

星實。(머리를쳐들며 귀를쳐들며 귀를기우리고) 저소리는동생의우름소리다 (눈물지음)세상에는저러케

압호게부르짖는사람들뿐이다 열마나무서운일일가 아々저러케압호게부르지질쎄엔 몹슨매를맛나

부다 造物主는確實히 無責任하다 人間이모든責任을지고 간수밖게업다 모든것은사람으로부터始作

하였다(기름 다시방바다에업드림 氣絶함 舞臺뒤로사람씨리는소래들남)

父親。(登場 外出하였든 모양으로)저애가(억개를썩벧々々하고 무시々々함을보임) 죽어넘어졌다저것

星實。 그러면 동생이 어머니께 줄구나.

妹一。 (말없이 머리를 숙임)

星實。 그런데 英湖氏가 동생에게 대한態度는 어떤지.

妹一。 길에서 만나도 모른체 하셔요.

星實 (생각함)

妹一。 그녀는 父母없이 그 아주머니 손에 자라기 때문에 아무런 命命일지도 모르겠네요.

星實。 아! 그녀는 오랫동안 가상에 북받쳐오르는 反抗을 참았대.

妹一。 (소리쳐 웃김) 형님에게 智慧를 빌려 주시오. 저는 이 一年間은 英湖氏를 생각지 않고는 제 幸福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星實 (생각함)

妹一。 英湖氏는 그 아주머니의 말은 안 드려도 형님의 말은 드릴 것이외다. 英湖氏를…… 내게…… (웃김)

星實 (생각함)

妹一。 형님의 말이면 그녀는 드릴 것이외다. 英湖氏를 내게로 傳하여 주시오. 형님한테 病알는 이는 그를 幸福되

게 할 수 없습니다.

星實 (입을 감쳐물고) 나는 英湖氏를 내 所有로 알지는 않는다. 그는 絶對로 큰 힘을 가진 한 사람이다. 나는 그

를 左右할 謀策을 쓸 수가 없다.

妹一。 그러면 당신이면 다만 두코라도 나와 約婚한 英湖氏를 빼앗지 않는다 고 契約束하여 주시오.

星實。 그것은 容易한 일이다. 나는 英湖氏와 約婚치 않을 것이다. 結婚生活, 肉的關係는 내게 큰 禁物이다.

妹一。 그러실 것 같으면 형님은 동생을 爲하야 이 갖치에라게 求하는 報酬를 얻어 주시는 것이 좋치 않음니다.

妹一。(妹二에게 눈흘기고) 너는 참견업다。

女下人一。(급히 쟁場) 자근아씨 드리오시랍니다。

妹二。누가。

女下人一。렁감마님쎄서요。

妹二。거짓말이다 령감마님쎄선벌서출입하섯다 큰형님을그대로우두고드리갈수는업다。

妹一。네가잇지안으나 동생은맛천가지다。

女下人一。急히々々드리오시래요 (星實에게) 큰아씨자근아씨더러가라심쇼(退場)

星實。동생아 되여가는일을그대로우둘수밖에업다 드리갓다가나오니라 (妹二 입을비죽々々하며退場)

妹一。저어형님사람이幸福되고안되는것은사람의임의로못하지오 (천천히머뭇々々말함)

星實。글세넌말할수잇나! (밥상압해서食事함)

妹一。만일잇던사람이 異性을 想思해서요 잇겠든지 그異性이아닐것갓호면 幸福을못잇갓다고달씨

질씨 그異性이갓하주지안을境遇에는 그잇던사람은 永遠히幸福을못잇것이아니오닛가。

星實。그잇선사람은눈이더밝아질수가잇겠지。

妹一。눈이밝어지다니요。

星實。그自身과相對者를 分朋이볼수가잇겠지。

妹一。그릴것갓호면 제가英湖氏를願한것은눈이밝지못한일이저오。

星實。동생이그일에는智慧를만히가졌을것갓해도.....

妹一。형님저는요세이큰번민가운데싸졌습니다 저는天痴가되었습니다。

星實。(밥수가락을뚫코 한숨) 그럼英湖氏는동생과約婚한것을 처음부터찬성안이했드란말인가 (혼자

말차치)그릴일도업술똥한데.....

妹一。(永源氏의夫人과 어머니와合意해서그랬다나봐요。

新 天 地 第 三 年 七 月 號

星實。 지애가 내感情을 傷해서 그런다。

妹二。 이애 비롯업시 왜 그래 주착업는년! (星實에게) 형님은 너무 말업스시닛가 저런것들이 선세상사람 갖치보이고 그래요。

女下二。 (심술난듯이 退場하면서 右편마루숫해서) 온언! 신식개화한아씨라고 짜증이나 발출안담 짜증 이야 누가 발출몰나 짜증을내러면 게모양반세내내보지 공연한어양받더러 왜그르시여。

妹二。 형님그짜짓것들의 말을 탄하지마세요。

星實。 그런것이아니라 내生活이 너무慘酷해서 그런다。

妹二。 그러니엇더케하우 어서念慮마시고 진지나잡수 언니나 내나다어머니업시자라나는타이지요。

妹一。 (먼저와는다른表情으로 登場) 그러나妹二에게視線을주지안은(형님중엇더세요 아춤에제가잘못했스민 용서해줄쇼)붓그러음뜻이고개를숙임)

妹二。 (星實의 얼굴을 縮히) 새삼수림게(바우슈)

星實。 (暫間無言) 왜그러나

妹一。 형님내지금것너무 형님세버릇업시구렸습니다 오늘自省해보닛가엄마나붓그러운지요。

星實。 그래只수이第一 조흔제라고 동생은내게와나。

妹一。 아니요 이리케형님압해 낚웃치기는좀느것다고생각합니다 그래도안그러는것보담은……。

星實。 아니다 동생은그代價를 밧고저하는것이다 동생은平時에교만하고붓그러업는것을 이런제利用해서야할것이다 업제는지사랑은第三者에게 自己가누릴幸福을 求하여서는올치안타 어느때든지第三者

는妨害者가아니면無能力者이닛가。

妹一。 그러나형님이아니십니까。 형님은내일에對해서第三者란그런冷靜한地位에안저계실수는업지안으

십니까。

妹二。 언니는어머니되지는第一은々한後援者가게시지안으십니까。

星實。 언니는어머니되지는第一은々한後援者가게시지안으십니까。

星實。 언니는어머니되지는第一은々한後援者가게시지안으십니까。

星實。연제라심니가 세라씨。

女教員。星實氏 너 무비탄하지마십쇼 쏘오지오。

星實。(몸을이르키려다가 기침함) 오피로워요 이러날수업입니다 그러 이대로失禮합니다 부대안령히...

.....(깃춤에말을맞추지못함)

女教員。너머서러맘쇼 쏘쉬오지오 (左편으로退場)

星實。세라씨 세라씨 (몸을이르키며) 잠깐만기다립쇼 벌써가셨다(팔노얼굴을가리고다시놀다) 몸시

아득이게하든째는갓다 (혼자말함)

女下人二。(밥상을이고登場 左편쪽마루에서거러나오며) 네기삼나라 오늘은西편에서 해가셔오르

도안엇는데 웬일이싸 노-식은밥덴것만되리든아씨를 급하한상채려되리라니 참그야말노生日되시

군 (미다지압호로와서 엽개를쑥뻗하고) 아씨아씨 진지상내왔습니다。

星實。거기노아라。

女下人二。거기가어디랍쇼

星實。아모데나。

女下人二。(상을내려노으며) 아이고아씨 쏘우시네 저리자말고 출가라도하시지 밥난우실나 아르실나아

씨다다러써지겠네。

星實。무엇이라나 (침대에서이러나며워엄잇게)

女下人二。아이구아씨 노여섯네 이다음에는아니 그러우리다。

星實이애。그렸케말을함부루하면못쓴다닛가。

女下人二。아씨씨서 노알으시닛가 출가나하시란말삼이외다 (얼굴을돌리고비우숨)

星實。점점말답지아는말만하는고나 어서드러가거라。

妹二。(다름박질登場)형님웨그리심니가。

女敎員。 그 후에도 못나기는 못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애라서 哀訴하든 아름다운 것이는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星實。 그러나 세라씨 우리는 언더케 그 갖치씨든 사랑은 自身의 實生活에 머무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는 맛치 씨위를 닮친 琉璃窓에서 그 菲齋한 氷花를 부저가 락으로 끌기내서 본다는 것과 같흔일이 아닐까요(女 敎員 星實 極히 煩悶할 것치 보임)

女敎員。 우리는 自己의 사랑을 實生活에 잇그리서 利用할 수는 없다 하나 ㅅ그러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星實。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實生活에서는 우리의 사랑을 이리 버렸습니까. 임의 다른 사람의 生活에 부쳐진 것 을 다 사서 저서 돌너오려면 일마나 그 아름다운을 損하야 겠습니까.

女敎員。(한숨) 그러기에 不幸한 우리들은 지나온 우리의 貴한 時間을 부드러 永遠을 建設하고 우리의 肉體 로가운데 修道尼갓치 生活케 하야 겠습니다. 그리고 그 生活을 自己의 幸福으로 알 수 맛게 업습니다.

星實。(한숨) 단해는 그러한이의 王이지오. 女敎員。(自問自答하듯) 그러한 生活에 安定을 얻을 수가 없었스면 조켓지. 그러나 단해에게도 그 永遠한 사 랑을 代表한 이에 게도 두 私生兒가 있섯다. 그 肉身이나 온조반니 그 정신이나 온돌노래(하평)

星實。 세라씨 저는 단해의 神曲보다는 레오나르드 반시의 문나리사가 事實이 희미해서 조흥니다. 女敎員。 極히 理知的이면서도 神秘스런 것말씀이지오.

星實。 네(피로운듯이 두손으로 가슴을 움켜잡고) 용서합쇼 었지곤한지요 連日復習을 했드니 오늘 아침에 는 吐血까지 했습니다(침대우에 눕다)

女敎員。 그럼 누심쇼 그것케 피로우신 줄을 모르고 나약이 될만이 하지도 못했습니까. 그리고. 星實。(침대우에 누으며) 容恕합쇼(가볍게 기총하다)가 정정정하하하(하평)

女敎員。(품에서 時計를 꺼내보고) 그럼 治療 잘 하십쇼. 星實。(적은 音聲으로) 언제나 ㅅ피울 수가 잇스릿가.

女敎員。(적은 音聲으로) ㅅ오지오.

과好奇心滿足에不過한것으로避하지안으면 안될것으로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저는結婚을쓰립니다. 女敎員。그렇습니다. 그러나그생각은 사려지지안을수업습니다. 그가당신을이세상에서멀니하는것입니다.

星實。그림세라써는?

女敎員。그런생각은세상에어붓子息이외다. 그는참을수업는靈肉이슴一치못하는압홍이외다. 저는일즉이 궁그린生活을維支하기爲해서. 그實은제가애라게 求하든사랑을 이입으로이손으로 거절하였습니다. 星實氏. 그후로는 모든浮浪한이들과 붓그림업는이들과 狂人들과 乞人들까지도 조곰도아저못하는사랑들로는볼수업서졌습니다. 星實氏. 저는 매일밤마다그런이들이해매인간거리를 차저다녔습니다. 아. 곳곳에서도저는그를다시차출수업시켰습니다.

星實。(몸서리를치며)오!얼마나무서운말씀이십니까. 그아저못하는이는 自己의理性으로自制하려고하지는아녘습니까.

女敎員。그이는英湖氏와는 思想을가졌셨습니다. 그이는무엇이든지體験하여가려고하든이였습니다. 英湖氏는그이와달라져서 무엇인지먼저알고 입을다무는이가아닌지요.

星實。네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이는결코말하는이가안입니다. 그리고무엇이든지모르는이가안입니다. 다. 그와날카로운은고요하면서무서운큰힘을가졌습니다.

女敎員。星實氏. 모든人生은업뜻아나온 사랑의힘의뿔구램이안에서 몸을맞초도록 버서남수가업는것이 아닐가요.

星實。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女敎員。그러나星實氏. 그는얼마나 禮節을조와하고恐鈍함을쓰리고 容恕라는것을모르는것일가요.

星實。사랑을말씀하십시오. 그래서세라씨가拒絶한그이는두번째. 당신에게도타오지는아녘습니까. 그후로는다시맛나지도못하셨습니까.

—— 號 月 七 年 三 第 地 天 新 —— (4)

父親。아는일을 왜 그리 케칠수를 한단말이나。

星實。저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안었습니다。

父親。고판꾸어라듯기 싫다 그럼 네 어머니와 동생이 거짓말을 한단말이나 (스름 ~ 退場)

女下人二。(登場)아어구 아씨 쓰우시네 아씨 동무화도상이 오셨습니다。

星實。이리로 드러오시래라 (이리나며 눈물을 흘림)

女教員。(登場)星實氏 왜 어파편치안오시오。

星實。容恕하시오 이 꼴을 보여서。

女教員。쓰우섯구려 그 저 눈물의 골짜기를 거리가시오 그가운데서 星實氏의 藝術이 培養될것입니다。

星實。세라씨 저는 참으로 올가에도 실증이 납니다 제 인물은 제 눈물에 다 녹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는

살수가 없습니다 맛치 溫帶의 生物이 寒帶로 옮겨져서 湄思慕하든 溫帶의 사당을 다시 안이 후로는 쓰다시

寒帶에서 살수 없는 것 같습니다。

女教員。星實氏시방이 리로 오다가 英湖氏를 피었습니다 그런데 아조身色이 말이 못되었습니다 저를 보았는

지 못 보았는지 그 대로 머리를 숙이고 지나가는데 몹시 煩悶하는 이 같습니다 (星實의 顔色을 縮히)

星實。(말없이 머리를 숙임)

女教員。그런데 星實氏의 서름은 그로 源因된 것이 아닙니까 언제 말씀하신 것도 드렸지요 마는 저는 작년 가을

세제가 가리키는 화생의 집이 층에서 내려다 보다가 그 正後園을 라리 밧길에서 星實氏와 英湖氏가 서로가

다가마 조처서 몹시 머뭇머뭇하고 어러워하시는 것을 본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두분의 얼굴이 파랗은 것저

는 時方도 잘 기억합니다 感激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리하든 당신들의 지난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합니다

(우서운 것을 보는 것 같아 치진저리 물침)

星實。세라씨! 제가 삼이 씨 저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조곰 전부터 세상은 썩새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 참말 사랑은 세상에 드물게 잇는 것으로 아라겠습니다 세상에서 자로 잇는 所謂 사랑이라는 것은 肉的衝動

醫師一。(놀나는듯이)夫人께서도 그러십니까。

父親。아니요 저애 어머니야 이되잇습니까。

醫師一。하하삼삼이저버렸슴다 그러 그러겟습니다 星實氏 그럼時方보아되릿가요。

星實。네(寢臺위로올나가며두루맥이를바서서한편에놓라)

醫師一。(가방에서體溫計를내여서흔들다)

(舞臺한참고요할 父親 醫師一 寢臺를가리워서診察할)

醫師一。(診察을맞치고)過하지는안습니다 時方이라도治療만잘했스면 念慮업습니다。

父親。네 그러면아직 다른사람에게 傳染된다든지그런 念慮는업습니다。

醫師一。글세요(가방을접음) 或이또저를부르시려면 저는오늘또門맛게를나가닛가 제대신英湖를불너

주십시오。

父親。그러지요 感謝합니다。

(醫師一 退場 父親 星實 전송할)

父親。그러기에 그피아노인지 무엇인지고만두라닛가 잊져네에도 공회당에서 그짓을하고 오늘은저모

양으로아르니(星實 寢臺우에업드림) 第一에새사둔宅이북그림다 어 되살이 되였느냐 저런病身을누

가데려갈리도업겟고 말이라니을父母하고갓치잇는法도안인데 衾를올네가돌보아서 알치안을도리를

해야지 낸들잊지하란말이야 醫師의費用인들적으냐。

星實。(업드려 눈길)

父親。그리고 일늘써할써번에일너두는말이다마는 英湖로말하면 네동생의남편될사람이안이야 그런데

(종주저항) 이를테면너부지나치게親하게지낸단말이야 너이세리먼저사피엿드래도 英湖아즈머니와

너의사방어머니가定해는것을(星實흔들 눈길)

星實。아버니아버니 너무하십니다 그러케까지말씀안이하셔도 다아려요。

父親。(웃팡주리를쳐들며) 어이구이물, 이애가엇재이것을 그대로버려두어슬가.

醫師一。그똥은아마 英湖가將來제夫人되시는그형님에게 레물한것이저요。

父親。宅에이런고픈똥이피엿습니까。

醫師一。네 英湖가自己손으로 溫室에서길냈습니까。

父親。大端히 貴한것이올시다그려。

醫師一。千萬의말씀이올시다 그런데 들재씨님 아니오 제아즈머니되실이는 오새무얼하십니까 도모지
외울수가업습니다그려。

父親。씩드러안치엿습니까。그애는제형파는달나서家庭에舍當하도록해야하겠기로 오새는그림그리듬
저도긋치라고하엿습니까。제衣服은만이지엇지요 그그런데(좀주저함)婚禮를언제나 지낼가요。

醫師一。글세요宅에서조조신제하면 저이게도조켓습니까 當者는붓그림이만어서 아직도그런말은드름
체만체 하지오마는 제가무엇이라겟습니까。

父親。그러면은이말안으로 일을치러버릴가요 급한듯합니까마는。

醫師一。그러시지요 新式婚禮야 舊式婚禮와달나서 簡單하닛가요 언제든지조으시지요 아마그일에대
해서는 제안으로서도夫人세議論할할나다 매우가가우신력이닛가요。

星實。(甚히서른表情으로登場)

父親。이자식아 좀엇더냐。

醫師一。頭痛은업스십니까。

星實。무어신지머리가서늘한것같해요 그리고조공전에논공연히육에서피가나왔세요。

醫師一。하々(쌔닷는바이엇던듯이) 그안피엿습니까그리 그런데血色은엇셋습니까。

星實。(피붉고키치안은듯이) 몰노겟세요。

父親。그그지어母親이피를뺏는다 엿전다하드니 저도달마서 그런것이로군(혼자말갓치)

星實。(漸々急히連해서기춤하며 피아노우에업디림)

妹二。형님 쏘피야노아래로 피가끓습니다그려。

星實。오! 피롭다 이빈에는 손에서피가나지안코 목구멍에서 목구멍에서

妹二。오오목구멍에서! 醫師를 불너올가요。

星實。그래타 그래타。

妹二。(다름질해서 마루위를 왔다갔다하다右편으로退場)

小童一。(右편으로거러나오며)그리면 큰아씨는地府黃泉으로가시려나 마님께서 밤마다 물써노코비시

드니 점점 가운데아씨세상이되여온다。

星實。(기우에서이러나며 벌엇케물드린 鍵盤을손수건으로씻고)이애야。

小童一。네!

星實。나를꼭욕할까지 좀부드려다다고。

(星實 小童一에게붓들니여退場)

(父親 醫士一登場)

父親。잊지않에는머리가압호다고 밤드러서 先生님을외셔오드니 오늘은쏘피를씻앗당니다 알인지무엇

인지 어멈도업는말이 三十이갓가을도록 제아비의속만래웁니다하하하하。

醫師一。그리실나가잇습니가 맞써님께서 그저씨님중에제일은못되지만 아직어리시고 才操가용하셔서

서울안에서 다 부러워하지안습니가 그저너무心慰를하셔서 자조病席에누시는것이 불상하신일이

요。

父親。(寢臺앞호로가서보고)이애가 어의를앗나 星實아星實아。

醫師一。(房안을뒤돌려보다가 피아노압헤삿팡주리가셔러젓습을보고)저기삿팡주리가 셔러젓습니다

그려。

星實。(키치안음듯이) 이애야 불씨러린다 세수물은 왜 들고 나와 그러니 누가重病을 알느냐.

女下人 一。그래도 마님께서 서다 되리라고 하세요.

星實。그러면 念慮 말고 沐浴湯에 갔다 노야라.

女下人 一。그럼 좀 있다가 마님 보시는 데 영감 마님 눈에 띄지 안으시도록 합쇼(退場)

星實。무슨 일이야.

妹二。(머뭇~하다가) 저어 엇저티브에 야비니께서 약 주 잡숫고 오를 언니의 生辰이라요 二十圓을 어머

니께 되렸는데(말을 끊고 치고 星實을 바라봄)

星實。아! 사탕가는 재미랄물느 깃다.

妹二。참 언니(고개를 숙여 눈물 지음)

星實。엇지 할고 몸은 약하고 갈 곳도 업고!

妹二。엇저 녀에도 어머니와 돌재 언니가 空然히 나를 돌복겠지요 큰 언니의 비위만 맞친다 늘 흥 말질을 한

다는 흥(흥々々々)

星實。그래 엇더케 하라구 그러되.

妹二。차라리 엇더케 하라구 닐너 나 주면 좋지요.

星實。엇지 할고(피아노압해가 안즈며) 동생아 저 열방에 가서 의장에 걸넌 두루맥이를 좀 갖다 주렴으나(가

밧게기춤하고 피아노치며 노래함)

동생아 동생아

차저 다고 내 방문을(妹二 두루맥이를 등에)

차저 다고 내 자리를

자리는 조흔 자리 잇기 아래(또기춤)

妹二。(不安한듯이) 또그런 노래를 하십니까.

星實。그이는그림도조화하실셈。

妹二。둘재언니는어제그림오늘音樂 내일文學! 참변덕도조호시지 아버지말씀대로바누질이나.....

妹一。웬참견이야 아니쌍게。

妹二。언니노했서요(未安한듯이)

妹一。뭇기시러(妹二의손엿쌍팡주리클락쳐서방바닥에셔리침)

星實。아서요 일엿禮物하진것을。

妹一。그림잘못되엇나보다(올머)형님도형남이고그이도그이지요 나와約婚을해두시고는형남과만片紙 왕래를하시교 쓰레물을한다엇전다하니 대데엇지되는일인지알수가업서 오늘은아버니세엿주어볼테야。

星實。아서요 그전부터아는이닝가 그러치 그러치야느면 동생의낫을보아서 다른사람들과갓치내게레 물을하는지누가안당。

妹二。그러기에 언니는홍홍하셔요 이남자저남자한테서片紙가오고 레물이왔다갓다하닝가(右편으로退場하면서)아니쌍게피야노나친다고 그쌍은볼수가업네。

妹二。큰언니。

星實。웅편지가웬편지리가 별말을다듯깃다。

妹二。둘재언니가 쓰오글은말성을피우러나와요 엿저보부터잡도안자고 썩밧친것처럼야단이야요。

星實。

妹二。그런데언니 英湖氏는 본래큰언니의親舊였지오。

星實。(自省하는듯이)내가엇지했단말인구 내가엇지했단말인구(머리를숙이고생각함)

女下人一。큰아씨 저마님세서(洗手물대야와양치기를들고) 큰아씨가몸편치안으시다고 세수물을써다 드리라고해서내와습니다。

장다。背景, 보이는 줄이며, 밑치색에 하늘한紗帳을 드리웠다 右편에는 細長한 大理石 寢臺가 노였고 中央에는 하얀 緞糸製의 보를 써워서 둥그린 卓子가 노였고 그 우에는 金燈반과 冊한 권과 水仙花의 花瓶이 보인다 舞臺左편에는 壁을 依하여 虎皮우에 피아노가 노였고 피아노 우에는 안준병이 甕팡주리가 보이다. 幕이 열리면 미다지를 갖친 房압해 쪽마루가 보임. 小童二 말업시 發場하여 左右의 미다지를 여러 제침. 房안에는 星實이가 寢臺우에 자자고 방바닥에 다다미 깔듯한 黃色 비로 드볼 요들이 아직 꺼지지 않은 燈에 찬란히 보임. 小童二 말업시고 오히려 退場.

星實。(음울이 르켜서 호호노 微笑하다) 四方을 휘둘러 보고 입을 썩죽 / 하며) 아! 썩 英湖氏의 상을 꾸 었고 나 이 되엇든지 이 房까지도 안코 아 조뵈은 곳이였다 하날 위도 썩 위도 分間할 수 업시 새 상에서 는 보 지못하든 뜻이 참으로 연하게 참으로 향피롭게 피엿섯다(忽然의 심하는 表情) 무엇인지 몹시 어렴풋하지 말장래의 노래가 들리는 것도 같했다 그런 가운데서 어렴풋하게 英湖氏와 내가 마조 祈禱하듯 머리를 굽혔다 아 아 오늘은..... 그이가 오실지도 모르겠다 昨年 갖치(청대아래 내리서며 피아노 압호로 가서 피아노 우에 甕팡주리를 내리워서 맛해보며) 썩 갖흔 甕을 주셨스닛가!

妹一。(妹二와 發場) 형님 그 뜻이 英湖氏가 주신 것이요 (갓가히 와서 맛해보며) 엇저면 이 러케 조흔 형내가 날가 지금 이런 뜻이 어 되잇서 술가(부러 운 뜻이)

星實。宮殿에 호호나 도를 나요。

妹二。언니들도! 그것을 몰느서요 溫室에서 피인 것이라 나요。

妹一。어느 溫室에서。

妹二。그거야 누가 안담(웃다) 굿치고 甕팡지를 몰고 맛소름)

妹一。형님(星實에게) 오날부터 피아노가 리켜 주세요。

星實。그림은 엇지하고 썩 피아노를 始作한대。

妹一。그러치만 英湖氏는.....(흐름지음)

어 붓 子 息

金明淳

人 物

- 星 實 人 二十三歲의 端雅한 女子 숨을 보는 듯한 表情 靑色의 寢衣를 닦았습
- 父 親 六十歲의 頑味한 老人
- 妹 一 二十二歲의 豐富한 肉體의 所有者 流行하는 華麗한 衣服을 닦았습
- 妹 二 十八歲의 사랑스러운 女子
- 醫師 一 三十四歲의 正直을 表示하는 듯한 男子
- 醫師 二 二十五歲의 青年 호리호리한 體格에 灰色 洋服을 닦고 머리틀속여 자조삼가는 態度를 가지
- 女 敎員 나 그 行動言語 甚히 敏捷하여 相對者에게 感動을 줌
- 女 下 人 一 二十五歲의 正直을 表示하는 女子 (星實의 동모)
- 女 下 人 二
- 小 童 一
- 小 童 二

第 一 場

봄날아침(三月三日)

寢室에 들어가서 寢室을 닦아내임. 그러나 門窓이 닫혀 있고 前面의 미다지 門이 열려져서 자못 棺을 열호로 노움

糸 念 號

△漢

內外時局日誌

詩

吳三柱〔九三〕

一記者〔九九〕

險口哲學

險口子〔三五〕

■ 文藝附錄 ■

지금은 서침간나 (詩)

朴月灘〔一〕

金魚의 葬式 (想華)

李瑞求〔八〕

北方의 砂 님 (詩)

金岸曙〔二三〕

墓地의 悲 曲 (小說)

月迎塔〔一九〕

蒼穹의 頌 (詩)

柳金香〔三四〕

어 붓 子 息 (戲曲)

金明淳〔三七〕

憂 鬱 (詩)

朴懷月〔五八〕

男 妹 (小說)

洪蘭坡〔六三〕

당신은가더이다 (詩)

盧春城〔七一〕

1931年三週

失業青年求職策에 就하야 玉 觀 彬 [三四]

婦人解放運動의 過去와 現狀 北京旅客 [四二]

世界紛糾中의 幸福의 路 李 大 偉 [五〇]

勞農露西亞의 經濟事情 赤 旗 手 [五八]

混沌狀態에 在한 中國의 政界 中 善 浩 [六四]

△海外同胞의 消息片片 編輯小使 [六五]

箕 子 朝 鮮 考 安 自 山 [六六]

國家의 本質과 愛國의 精神 光 化 門 人 [七三]

近代劇과 離婚問題의 考察 尹 白 南 [八〇]

生物學上으로 觀한 人間社會 吳 介 石 [八六]

크로포트킨과 無政府主義 梁 夏 葉 [八九]

中間階級의 社會主義 朴 仲 達 [九三]

新 天 地

政治時事 月刊雜誌 「新天地」第三年第七號

△神秘에 而 하야 (에! 아! 아! 列! 列!) 油畫銅版

△두 돌을 맞는本社幹部一同 寫眞銅版

△如日之昇如月之恒 (庚山李非彩氏筆) 寫眞銅版

亞細亞문제 — 主義의 正體 卷頭言 (一)

政治思想의 改造 社說 (二)

朝鮮人의 觀한 民族主義와 世界主義 吳尙殷 (六)

弱小民族의 解放運動과 社會的 傾向 東都散人 (一〇)

새로이 展開되는 印度 民族運動의 趨勢 南極星 (一八)

弱小民族의 處地와 民族運動의 新傾向 朴濟鎬 (二五)

風風雨雨兩三年을 經한 中에 朝鮮言論出版界의 不振을 痛憾함 岳山樵人 (二八)